



“정책선거 합시다” 전남도지사 후보들이 1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고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평화민주당 김경재·민주당 박준영 후보, 선재성 전남도 선관위원장·한나라당 김대식·민주노동당 박웅우 후보,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 전남도교육감 후보들도 이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통근길 선거운동 생활정치 눈길 前 대통령비서실장 구의원 출마

■ 이색 후보 누가 뛰나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다양 한 경력과 사연을 가진 후보들이 눈 길을 끌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로 나 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육 중 출마 군수에 15차례 최다 출마, 가 족 후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보가 등장, 유권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 하향 지원 눈길=이병완 전 노부 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국민참여 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 기초의원 다 선거구 후보로 등록했다. 권력의 핵심이었던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 초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사상 조유의 일이다. 이 전 실장은 당초 국민참여 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했으나 지난 7일,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선출되자 “풀뿌리 민주주의 조선인 기초의원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목포 시장 예비후보였던 민영삼씨도 “목포의 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에 몸을 던지겠다”며 목포시의원 아 선거구 (신흥·부흥동)에 등록, 눈길을 모으

고 있다.

◇ 출·퇴근길 선거운동=공기업 인 가스안전공사에 근무하며 출·퇴근길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도 있다. 광주 동구 기초의회 선거구에 무 소속으로 출마한 김동현 후보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에 집중 선거운동을 벌이며 말 그대로 ‘생활정치’를 개척하고 있다. 그는 전공을 살려 주민들이 용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투명 LPG 가스통 교환 지원 조례’ 제정, 방역 체계 획기적 개선 같은 풀뿌리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공기업 직원도 기초의원은 겸직할 수 있다는 공직 선거법에 착안,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어 출마했다”고 밝혔다.

◇ 가족 대타 출마=순천 제4선거구 도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등록 한 정윤미 후보는 민주당 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낙선했던 김광호 순천시 의회 의장의 아내다. 불공정 경선의 피해자인 남편의 한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순천 제3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이영란 후보는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후보단일화 과정 에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이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여동생이다. 이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주도한바 있는 서갑원 의원 보좌관 출신과 맞붙을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직 군수 옥중 출마=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전완 준 전남 화순군수도 대리인을 통해 화순군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옥중출마다.

◇ 최다 출마 화제=강도석 전 시의원이 13일 광주시의원 남구 제1선거구에 후보로 등록, 15번 째 무소속 출마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강씨는 지난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총선 5번, 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6 번, 광역의원 3번 등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14번 출마했다.

전남에서는 광봉근 한나라당 진 도군수 후보가 일곱 번째 도전에 나섰다. 괴 후보는 11대, 14대, 16대 국 회의원 선거에 나서 고배를 마셨고 진도군수도 3번 출마해 낙선했던 바 있다.

/임동욱·최권일기자 tuim@

광주·전남 경쟁률 2대 1

6·2 지방선거 964명 후보 등록

‘6·2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14일 오후 5시 공식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전의 막이 올랐다. 〈관련기사 2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에 따르 면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광주·전남에서는 총 964명(광주 242 명·전남 722명)이 등록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2.9대 1의 경쟁률에 비해 낮아졌 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 선거에 6명, 구청장 선거는 18명, 시의원 62명(비례 12명 포함), 기초의원 141명(비례 22명 포함), 교육감 5명, 교육의원 10명 등 총 242명이 등록해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장 선거가 6대 1의 치열한 경

쟁률을 보였고, 5개 구청장 선거에는

18명이 등록해 3대 1의 싸움을 벌이게 됐다.

전남은 전남지사 선거에 4명, 기초단체장은 66명, 도의원 115명(비례 19명 포함), 기초의원 511명(비례 62명 포함), 교육감 7명, 교육의원 19명이 등록을 마쳐 2.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7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22곳의 기초단체장 선 거에 66명이 몰려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불모지인 광주·전남에 서 1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여성은 모두 121명이 출마해 전체 후보의 7%를 차지했다.

영암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김일태 후보가 홀로 등록해 사실상 당선 됐다. 도의원의 경우 목포 1·2선거구, 순천 2선거구, 담양 1·2선거구, 곡성 1선거구가 단독 출마지역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달 재발사 앞두고 우뚝 선 나로호

1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나로호(KSLV-1) 지상시험모델 이 발사에 관계된 테스트를 위해 세워져 있다. 나로호는 다음달 9일 발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 어음부도율 2%대로 급증

광주 지역 건설업계에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어 음부도율이 2%대를 넘어섰다. 연중 평균 0.81%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가파 르다. 지난해에는 삼성건설, 올해는 남 양건설이 경년난이 원인이 됐다.

이달에도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금광기업·새한철강 등의 어음이 금융권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 어음 부도율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 한 ‘2010 4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 도동향’에 따르면 4월 중 광주·전남지 역 어음부도율은 1.11%로 전달(0.31%)보다 0.80%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광주 지역은 전달(0.42%)보다 무려 1.73%포인트 상승한 2.15%를 기 록했다. 이는 지난달 2일 남양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남양이 발행한 어 음이 4월 들어 잇따라 돌아와 어음부도

율을 크게 높였다. 지난 1월 0.35%, 2 월 0.26%, 3월 0.42%였던 것과 대비하 면 4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4월에도 광주 지역 어음부도율은 2.24%로 연중 최고치였다. 당시 삼성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부도 금액과 어음부도율이 급상승했다.

한편 전남 지역 어음부도율은 0.17%에서 3월(0.06%)보다 0.11%포인트 떨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